

김치부터 디저트까지 ‘총출동’ K-푸드+, 세계 시장 두드린다

농식품부, 45개국 바이어 초청
김치·과일·면류 등 상담 이어져
H마트·이온 등 대형 유통사 참여
중소기업 K-디저트도 첫 선보여

‘K-푸드+’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수입상) 초청 수출상담회(BKF+)가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행사에 전 세계 45개국의 바이어(수입상)를 초청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를 통해 정부는 K-푸드+의 해외 판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K푸드+란 농식품뿐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5개국 133개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260개사 등 총 393개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바이어 간 실질적인 계약 체결 성사를 돕는다. 아울러 신규 거래선 발굴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부문은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중동, 아세안 등 총 43개국 123개 바이어와 230개 수출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농산업’ 부문에선 7개국 10개 바이어와 30개 수출기업이 행사장을 찾았다.

농식품부는 상담회 전부터 음료·스낵·면류·김치·신선과일 등 바이어 선호



송미령(오른쪽 2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바이어 초청 K푸드+ 수출상담회’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품목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도 주선했다. 현장에서 바로 수출계약(MOU)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표 바이어로는 미국 H-마트, 일본 이온, 홍콩 HKTV몰, 네덜란드 비글리코퍼만, 아랍에미리트(UAE) 셰프미들리스트 등이 참여했다.

행사 기간 중 ‘K-푸드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식도 함께 열린다.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유통망과 판매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익산농협(생크림잡쌀떡), 한

일후드(가락국수), 에스오엠에프앤아이(호떡) 등 중소기업의 K-디저트를 미국 유통매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바이어에게는 우수한 한국의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을 현지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가스안전공, 몽골 ‘에너지 대전환’ 전폭 지원

한-몽 가스안전 협력강화 간담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충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주한 몽골대사관(대사 수크볼드 수케)과 함께 한국-몽골 간 가스안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에너지 및 가스 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주한 몽골대사관 방문에 이은 답방 형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몽골 내 가스

안전 법적기반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계획 ▲향후 중점 협력 방안 ▲한국의 가스안전 관리체계 및 시사업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국내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가스안전 종합상황관리실과 수소안전무지움을 순차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국 사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몽골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가스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사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 ‘갑질’

공정위, 거래처 제한 적발 시정명령
“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이용”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

월 ~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부발전 안전활동 수준, 4년 연속 A등급

“전 임직원·협력사 함께 노력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안전 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공기업군 최고 성적을 냈다.

서부발전은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에이(A·우수) 등급을 받았다.

고용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당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을 점검하

고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고용부는 안전 보건 경영 체제, 안전 보건 관리, 안전 보건 활동, 안전 보건 성과 등 4개 분야와 현장 작동성을 종합 평가해 대상 기관(108곳)을 에스(S)에서 이(E) 등급으로 나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서부발전을 포함해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 우수한 6개 기관에 에이 등급을 부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치유농업, 조현병·우울증 치료에 효과”

농진청, 의료기관서 진행 실증 결과
11개월간 환자 170여명 대상 실시
환각·망상·비논리적 사고 등 13% ↓

채소나 식물 재배를 통해 신체, 심리,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농업’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16일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식물 재배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서 실증한 결과, 기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 1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 등에서 실시됐다.

조현병 환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등 양



농촌진흥청은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식물 재배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서 실증한 결과, 기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상당한 정신질환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성 증상은 22.5점에서 19.5점으로 13% 감소했다.

음성 증상도 22.3점에서 19.5점으로 13% 줄었고, 일반정신병리증상은 46.6점에서 41.0점으로 12% 떨어졌다. 반대로 심장 안정도와 자율신경 활

성도는 각각 12%, 13% 향상됐다.

우울증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한 ‘인지행동 전략 프로그램’은 과증과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 사고를 씨앗의 성장 과정과 연결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우울 고위험군의 우울감은 적용 전과 후 각각 33.9점에서 23.9점으로 30% 차이가 났다. 심한 우울단계에서 중한 단계로 우울이 한 단계 개선됐고, 대인관계 요인이 사전 6.9에서 사후 3.6으로 48% 줄었다.

감정 안정과 내면 성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상대적 세타파(RT)는 29% 증가했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나타내는 상대적 알파파(RA)도 18%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역대 4번째 팀 노히트노런’ LG, 삼성 3연패 뼈뜨려… KIA·한화 2연승 /사진 뉴시스
▲‘마스터스 골프 5위’ 임성재, 2주 연속 상위권 노린다… PGA 헤리티지 출격

▲‘인센티브 논란’ 유승민 징계 위기… 체육회장 후보들 사퇴 요구
▲‘김연경 라스트댄스’ 여자배구 지난 시즌 대비 관중·시청률 증가

▲오타니, MLB 콜로라도 상대 시즌 5호 홈런 ‘깡’
▲‘탁구 간판’ 신유빈, ITTF 월드컵 첫 경기서 미국 아미 왕 격파